

주된 은퇴, 마지막 은퇴, 점진적 은퇴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고 축복일 수 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은퇴 이후 소득 흐름 등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다면, 은퇴는 새로운 차원에서 또 다른 삶의 시작일 수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보내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축복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였더라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하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은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주된 일자리 은퇴와 노동시장 은퇴에 있어서 양자는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양자가 일치하면서 준비된 은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만약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은퇴라면 이를 피고 늘려서 점진적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49세에 불과한 한국에서 점진적 은퇴는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도 점진적 은퇴에 눈길이 가게 된다.

고령화를 앞서 겪은 바 있는 국가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일 수 있다. 정해진 정년에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생산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재고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은퇴를 점진적이게 할 수도 있다. 정년에 이르기 이전부터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는 대신

고용기간을 늘려 은퇴를 점진적이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줄어든 근로소득의 일부를 부분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네덜란드 그리고 핀란드의 경험은 재고용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점진적 은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임금의 연공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늦게 은퇴하고 있다는 점 등에 유념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KLI**